

勞 動 經 濟 論 集
 第28卷(2), 2005. 8, pp. 93~117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교육훈련기관 유형별 청년층 취업률 분석*

채창균**

이 글에서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를 취업률에 국한하여 교육훈련기관 유형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졸업생 명단과 고용보험 DB를 결합, 직업력 자료를 구축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수능점수를 확보하여 분석에 이용함으로써, 개인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요 변수로서의 수능점수의 노동시장 효과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였다. 실증 결과에 따르면, 교육훈련기관간에 취업률의 차이가 존재하며 교육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4년제 대학의 경우 수도권 소재 여부가 취업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능점수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전공에 따라 취업성파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취업률, 고용보험 DB,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수능성적, 전공효과

I. 문제 제기

우리 사회의 청년실업이 여전히 심각하다. 이러한 청년실업의 문제는 경제성장 둔화(신규채용 억제)나 산업구조 변화(낮은 고용창출, 노동절약적 신기술 도입), 기업의 인력정책(경력직 선호, 상시 구조조정),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따른 내부자-외부자(insider-

* 유의한 지적을 해준 익명의 논문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che@krivet.re.kr)

outsider) 문제의 가시화 등과 같은 수요 측면의 변화와 교육훈련의 질적 저하 및 이로 인한 낮은 경쟁력, 청년층의 3D, 중소기업 기피와 같은 근로의식의 문제 등과 같은 공급 측면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의 완화를 위해 노동부 등 관련 주요 부처에서 다각도의 청년실업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기대만큼 대책의 실효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청년실업대책의 실효성 부족은 여러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그간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구가 미진한 부분이 다수 있어 올바른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할 정확한 사실들(facts)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층의 특성별로 실업 양상이 상이할 수밖에 없는데, 특성별 실태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다. 따라서 청년층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실업대책이 수립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청년실업대책의 실효성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동안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에 대한 연구도 전문대와 대학의 '정규교육과정' 졸업자를 주요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직업교육기관의 졸업생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청년층 노동력 인구 중 재학생인 인구를 제외한 비재학인구의 구성을 보면 고교 이하 졸업·중퇴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¹⁾ 이들의 상당수는 직업훈련기관의 교육과정을 거쳐 노동시장으로 이행한다. 또한 이들은 고등교육 졸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노동시장정책이 더 절실한 집단이다. 따라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졸업생은 물론, 주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졸업자도 대상으로 포함하여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실태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각급 교육훈련기관 유형별로 취업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전문대학과 기능대학 졸업생의 취업률 차이를 비교해 본다. 통상 기능대학의 취업성고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과연 유사 교육기관인 전문대학과의 비교시에도 그 우월성이 확인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 수능성적의 취업효과를 분석한다. 수능성적이 개인의 능력을 일정 정도 대변한다고 볼 때, 수능성적이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다만, 아직 그 영향력의 크기

1) 전병유 외 (2003)에 따르면 청년층 (15~29세) 노동력 인구 (10,253천명)의 54.8% (5612천명)가 비재학중인, 즉 졸업 또는 중퇴한 자이다. 이 비재학 청년층의 학력별 분포를 보면 대학 중퇴·졸업이 10.9%, 전문대 중퇴·졸업이 11.1%, 중고교 중퇴·졸업이 32.8%이다.

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지지 않은 만큼, 그 영향력의 정도를 확인하는 작업 자체가 갖는 의의가 적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취업성과를 비교·분석한다. 보통 수도권대학의 취업성과가 지방대학보다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우수한 능력을 지닌 학생이 수도권대학에 집중된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수능성적이 개인의 능력을 대변한다고 볼 때, 수능성적이 고려되었을 경우에도 수도권대학의 취업성과가 지방대학보다 여전히 높은지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또 다른 문제의식이다.

끝으로 소위 '전공효과'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상황은 전공별로 다를 것이고, 이런 노동시장의 상황에 정원조정 등으로 대학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전공효과'가 나타날 여지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이 노동시장의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으며, 그렇다면 전공에 따라 취업률이 상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연 이러한 '전공효과'가 실제하고 있는지 분석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 특정 코호트(cohort)를 대상으로 이들을 출신 교육훈련기관별로 여러 집단으로 나눈 후, 각 집단의 노동시장 이행실태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청년층은 4년제 대학 졸업생, 전문대학 졸업생, 기능대학 졸업생,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2년 과정 및 1년 과정 수료생, 직업전문학교 수료생으로 구분된다.

II. 이용 자료

본 연구에서는 각급 교육훈련기관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2001년 2월 시점의 여러 교육훈련기관 졸업생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를 고용보험 DB와 결합하여 개별 졸업생의 직업력(job history)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여 활용하였다.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경우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2001년 2월 졸업생 전수 명단이 아니며, 그 중 일부이다. 4년제 대학은 25개, 전문대학은 29개 학교의 졸업생 명단이 확보되었는데, 졸업생수는 각각 58,574명과 47,646명이다. 졸업생수를 기준으로 모집단과 비교하면 대략 1/5 규모로 표집되었다고 볼 수 있다.²⁾

졸업생의 출신 학교명과 학교소재지, 학과명 등이 파악되었고, 학과의 경우 한국교육

개발원(2003)의 분류체계에 따라 대분류와 중분류·소분류·세분류로 나누었으며, 전공 대분류는 인문계열·사회계열·교육계열·공학계열·자연계열·의약계열 및 예체능계열의 7개로 구분된다.

모집단과 본 연구에서 활용된 표본의 지역별 구성을 보면, 전문대학의 수도권대학 출신 졸업생이 약간 과대 표집된 점을 제외하고는, 표본에서의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수 및 졸업생수 분포가 모집단의 분포와 대체로 일치한다. 한편 4년제 대학의 경우 대학수나 졸업생수의 측면에서 모두 국공립대학이 과소 표집되어 있다. 그러나 성별 분포나 전공 대분류별 분포를 보면 대체로 모집단과 일치되는 모습을 보인다.

〈표 1〉 모집단과 표본의 비교: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단위: 개교(%))

		4년제		전문대학	
		모집단	표 본	모집단	표 본
지역별 대학수	수도권대학	71(36.6)	10(40.0)	50(31.6)	8(33.3)
	지방대학	123(63.4)	15(60.0)	108(68.4)	16(66.7)
국공립여부별 대학수	국공립대학	46(23.7)	2(8.0)	15(9.5)	3(12.5)
	사립대학	148(76.3)	23(92.0)	143(90.5)	21(87.5)
지역별 졸업생수	수도권대학	105,412(39.1)	24,061(41.1)	81,588(35.0)	20,055(42.1)
	지방대학	163,874(60.9)	34,513(58.9)	151,384(65.0)	27,591(57.9)
국공립여부별 졸업생수	국공립대학	69,337(25.7)	3,584(6.1)	8,628(3.7)	4,509(9.5)
	사립대학	199,949(74.3)	54,990(93.9)	224,344(96.3)	43,137(90.5)
성별 졸업생수	남자	148,662(55.2)	34,254(58.5)	102,501(44.0)	22,583(47.4)
	여자	120,624(44.8)	24,320(41.5)	130,471(56.0)	25,063(52.6)
전공대분류별 졸업생수	인문계열	33,690(14.9)	7,323(14.0)	11,144(5.0)	2,429(5.3)
	사회계열	64,273(28.3)	14,647(28.0)	54,082(24.3)	10,787(23.6)
	이공계열	96,979(42.8)	23,633(45.1)	108,210(48.7)	22,952(50.2)
	의약계열	11,072(4.9)	2,974(5.7)	19,440(8.7)	3,862(8.4)
	예체능계열	20,714(9.1)	3,789(7.2)	29,403(13.2)	5,685(12.4)
전 체		269,286(100.0)	58,574(100.0)	232,972(100.0)	47,646(10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01.

- 2) 졸업생 명단의 확보는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 진행되었는데, 명단 제출은 전적으로 학교측의 자의에 맡겨졌다. 따라서 명단 제출의 거절이 무작위로 발생한 것인지가 표본의 대표성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하다.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본 연구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주요 특성별로 모집단과 표본을 비교해 볼 때 후술하는 몇 가지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대표성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가중치를 다시 부여(re-weighting)하는 방식을 통해 대표성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는 있는데, 이는 추후의 연구에서 시도해보기로 한다.

그 밖에 기능대학은 2001년 2월 졸업생을 배출한 19개 대학 중 12개 대학,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2년 과정 및 1년 과정, 그리고 직업전문학교 수료생의 경우에는 전수 졸업생 명단이 확보되었다.

한편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졸업생에 대해서는 개별 졸업생의 자질이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입학 시 수능점수를 고려하였다.³⁾ 수능점수는 고려학력평가연구소의 자료를 활용하였는데,⁴⁾ 여기에서의 수능점수는 각 학교별·학과별 평균 수능점수이다. 자료상에 학과별 평균 수능점수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활용하였으며, 그렇지 않고 학과별 수능점수대별 빈도수만 제시되어 있는 경우는 수능점수대의 중간값을 이용, 각 빈도로 가중 평균하여 평균 수능점수를 계산하였다.

2001년 졸업생의 입학시점은 군 문제 등으로 인한 휴학기간이 없었다면, 4년제 대학의 경우 1997년, 전문대학의 경우 1999년이었을 것으로 간주하였다.⁵⁾ 그런데 일부 휴학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휴학이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의 정상적인 입학시점의 수능성적과 그 입학시점의 2년 전 수능성적을 가중 평균하였다. 다만, 전문대학의 경우 1997년과 그 이후 점수 간에 시계열적 일관성이 없어, 1997년 수능점수 대신 1998년 수능점수를 활용하였다.

2개년 수능점수 간의 평균값 계산을 위한 가중치를 구하기 위해 『교육통계연보』를 통해 휴학률을 계산해 보았는데, 4년제 대학의 경우 1997~2001년간 각년도의 평균 휴학률이 약 20%로 나왔고, 전문대의 경우에도 1999~2001년간 각년도 휴학률의 평균값이 약 20%로 나타났다. 따라서 4년제 대학의 경우 1995년 20%, 1997년 80%의 비중으로 가중 평균값을 계산하였으며, 전문대의 경우에는 1998년 20%, 1999년 80%의 비중으로 가중 평균값을 구하였다. 이렇게 계산된 점수를 특정 학교의 특정 학과에 입학한 개별 졸업생의 입학 시 수능성적의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간주하였다.⁶⁾

이 점수는 본 연구에서 세 가지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그 점수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3) 분석과정에서 대학의 특성을 완전히 통제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하의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수능성적이 개인의 능력만이 아닌 '학벌'의 효과를 부분적으로 대변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이 수능점수를 통해 개별 학생들에 대한 대학입학 진로지도가 이루어지므로, 상당히 신뢰성이 높은 자료일 것으로 판단된다.

5) 4년제 대학의 일부 6년제 학과나 전문대학의 3년제 학과에 대해 특별한 조정을 해주지는 않았다.

6) 일부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수능점수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수능점수가 포함된 형태로 분석이 진행되는 경우 이들 학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였고,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각각에 대해 3분위와 4분위로 범주화하기도 하였다. 전체 졸업생 명단에 수능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백분위로 하여 3분위는 수능성적을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로 나눈 것이며, 4분위는 상위 20%, 중상 30%, 중하 30%, 하위 20%로 범주화한 것이다.

이렇게 수능점수가 결합된 졸업생 명단을, 그 명단상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여, 고용보험 DB상의 피보험자 자료 및 사업장 자료와 결합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개별 졸업생의 직업력에 대한 파악이 가능했다. 개별 취업기간(job spell)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 사업장 업종,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직종, 월급여액, 주소정근로시간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그간 대학 졸업생의 취업실태 분석을 위해 활용된 자료는 대단히 제한적이었다.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02년과 2003년에 실시한 전문대·4년제 대학 졸업생 조사의 경우 표본수가 제한적이어서⁷⁾ 보다 세분화된 기준을 적용한 분석이 곤란했다. 수능성적과 같이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한 정보도 결여되었다. 또 첫 일자리와 현재의 일자리에 대한 정보만이 제공되어, 직업력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를 위해 구축된 자료는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실태 분석을 위해 대단히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⁸⁾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실태 분석을 위한 고용보험 DB의 활용은 여러 연구(채창균 외, 2002 등)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에는 출신 학교나 훈련기관 등에 대한 정보가 결여되어 있어, 노동공급 측면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일부 직업전문학교 수료생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DB와의 결합을 통한 분석 연구가 있었지만(장홍근 외, 2002),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각종 훈련기관을 망라한 청년층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위한 직업력 자료의 구축은 본 연구가 최초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자료 역시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취업자나 자영업자의 취업 상황이 포착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한다.⁹⁾ 또 비경제활동인구가 파악되지

7) 2002년 조사의 경우 6,265명, 2003년 조사에서는 14,026명이 표집되었다.

8) 채창균 외(2004)에서는 직업력 자료의 특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청년층의 첫 직장으로서의 이행, 노동이동 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9) 참고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수혜율(coverage)은 임금근로자의 49.8%(2002.12), 적용대상 기준으로는 69.7%(2002.12)에 불과하다.

〈표 2〉 이용 자료의 강점과 한계

강 점	한 계
- 대규모 표본으로 세분화된 기준을 적용한 분석 가능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취업자나 자영업자의 취업 상황이 미포착
- 수능성적에 대한 정보 활용 가능	- 비경제활동인구의 파악 곤란
- 노동이동에 대한 파악 가능	
- 노동공급기관(교육훈련기관)의 특성 파악 가능	

않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실업에 대해서는 분석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¹⁰⁾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의 강점과 한계를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Ⅲ. 취업률 비교 분석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지 살펴본다. 여기에서 취업률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취업자를 전체 대상인원으로 나눈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고용률에 가깝다.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해 있거나 자영업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취업자로 포착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제의 고용률보다 다소 과소한 값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분석 대상인 청년층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중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 고용률과의 격차가 그렇게 현저하지는 않을 수 있다. 또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대단히 영세한 기업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취업의 질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통상의 고용률에 비해 우리의 지표가 갖는 장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취업률만으로 노동시장의 성과가 좋고 나쁨을 단정지을 수는 없다. 임금수준이나 직업, 종사하고 있는 사업체의 규모 등 취업의 질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미

10) 이러한 한계의 극복을 위해서는 고용보험DB상에 취업자로 잡히지 않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비경제활동 여부, 실업 여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취업 여부, 자영업 여부 등 10여 개의 간단한 문항 중심으로 부가정보 수집을 위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는 추후의 과제로 삼기로 한다.

취업이 보다 좋은 직장탐색을 위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취업률에만 국한하여 분석을 진행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실제 연구에서는 취업률만이 아니라 초임수준, 취업한 현재 직장에서의 근속연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로의 취업 여부 등 취업의 질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지표들이 종합적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들 연구 내용을 하나의 논문에 담기에는 너무 방대한 측면이 있었고,¹¹⁾ 또 무엇보다 취업의 질이 문제시되기 위해서는 우선 취업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¹²⁾

1. 4년제 대학 졸업생

2001년 2월 시점의 4년제 대학 졸업생의 2004년 6월 말 현재 취업률을 대학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우선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이 지방대학 졸업생보다 5% 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남자·여자 모두에게서 동일하게 확인된다. 수도권 대학의 취업률이 지방대학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2004년에 교육인적자원부 주도로 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해 진행된 해당 대학의 자계식 보고에 기초한 취업률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4년제 대학 졸업생(2003년 8월과 2004년 2월 졸업)을 대상으로 2004년 4월에 실시된 취업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대학의 취업률은 58.6%로 지방대학의 54.9%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³⁾

11) 취업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채창균 외(2004)를 참조할 것.

12) 제한된 조사 여건에서 노동시장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도되는 것이 취업률 조사임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한 고등교육 졸업자 취업률 실태 전수조사에서도 확인된다.

13) 취업률의 절대치가 졸업생 명단과 고용보험 DB를 연결한 본 자료에서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졸업 이후 경과 시점이 길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간의 취업률 격차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자료에서 보다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몇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먼저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학교를 통한 자계식 조사가 취업률의 과대 보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과대 보고의 유인은 위기상황에 처한 지방대학에서 더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지방대학 졸업생의 경우 수도권대학 졸업생에 비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하는 비율이 높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의 취업률 지표에는 반영되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물론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의 분석 자료에 지방대학 중 국립대학이 상대적으로 과소하게 포착된 결과일 수도 있다. 우리의 상식에 비추어 본다면 이들 측면이 공존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추론일 뿐 추가적인 조사 없이는 현재 시점에서 어느 쪽이 보다 사실에 가까운지 확인할 길이 없다.

〈표 3〉 4년제 대학의 수도권 소재 여부와 졸업생 취업률

(단위: %)

	남 자	여 자	전 체
수도권대학	80.9	63.5	74.9
지방대학	75.5	59.1	69.6
전 체	77.9	61.0	71.9

대학 특성과 무관하게 여자 졸업생의 취업률이 남자에 비해 일관되게 낮게 나타나고 있음도 특징적이다. 이는 남자 대졸자에 비해 여자 대졸자의 취업이 더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측면도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결혼 등의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화하는 비율이 여자 졸업생의 경우 더 높다고 한다면 실제 남녀간의 취업률 격차를 다소 과대하게 보여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수능성적별 취업률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의 수능성적은 각 졸업생이 입학한 학과의 평균점수이다. 우리의 예상대로 수능성적이 높을 수록 일관되게 취업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4분위로 나누든 3분위로 나누든 간에 학교 평균 수능성적이 상위 범주로 갈수록 취업률이 높아지는 양상이 명확하게 확인되며, 이런 경향은 남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표 4〉 4년제 대졸자의 수능성적과 취업률

(단위: %)

		남 자	여 자	전 체
수능성적 4분위별	20% 이하	67.0	49.5	60.0
	20~50%	74.5	59.4	68.5
	50~80%	79.1	60.0	72.4
	80% 이상	81.1	66.2	75.8
수능성적 3분위별	30% 이하	70.6	56.8	64.5
	30~70%	75.6	59.4	69.4
	70% 이상	81.3	63.6	75.4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대학 여부나 졸업생의 수능성적, 성별 등에 따라 취업률이 상이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특히 어떤 요인들이 4년제 대학 졸업생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의 취업 여부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취업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짓분석을 시도해보기로 하자.

로짓분석에서는 교육계열과 의약계열을 제외하였다. 이는 취업률이 과소하게 잡힐 가능성이 다른 어떤 계열보다 크기 때문이다.¹⁴⁾ 설명변수로는 성(남자=1), 연령(연속변수)과 연령의 제곱, 수능점수(입학한 학과의 평균 수능점수)와 전공 대분류(인문계열 기준), 수도권대학 여부(수도권대학=1), 국공립대학 여부(국공립대학=1)를 고려하였다.¹⁵⁾ 수능점수는 4분위나 3분위로 범주화하여 더미변수 형태로 포함시키기도 하였고, 연속변수의 형태로 고려하기도 하였다. 회귀식 1에서는 수능점수를 설명변수로 포함하지 않았으며, 회귀식 2, 3, 4에는 수능점수를 더미변수나 연속변수의 형태로 설명변수에 포함시켰다.¹⁶⁾ 수능성적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과 포함한 모형을 구분하여 추정한 것은 수능성적의 포함 여부에 따라 다른 설명변수(특히 수도권대학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 등)의 취업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기 위해서이다. 또 수능성적을 4분위와 3분위로 나누어 분석한 것은, 수능성적의 취업에 대한 영향력이 어떤 점수계층 집단간에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연속변수 형태의 수능성적을 이용한 모형을 추가로 설정한 것은 해석의 편리함 때문이다.¹⁷⁾ 로짓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는데, 추정 결과로부터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남자 졸업생의 취업률이 여자 졸업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졸업생에 비해 2.5배 정도 취업 가능성이 높다.¹⁸⁾ 이는 대단히 격차가 큰 것인데,

14) 의사나 한의사, 약사의 경우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전공 소분류별로 취업률을 볼 경우 이들의 취업률이 상당히 낮게 나타남이 확인된다. 특히 한의학과 졸업생의 경우 취업률이 20% 내외로 낮게 나타나, 한의사의 자영업자 비율이 대단히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교육계열도 취업률이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교사의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15) 본 표본에 방송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일부 산업대가 포함되어 있으나 근로자로서 진학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이들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이 일반 4년제 대학 졸업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학교유형 더미변수를 설명변수로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16) 회귀식 2, 3, 4에 국공립대학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본 자료에 포함된 국공립대학에 대한 수능점수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7) 후술하는 전문대학의 경우와 달리 졸업 이전 취업 여부 변수를 설명변수로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전문대학과 달리 직장생활 경험자의 진학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실제 이를 포함한 추정시 그 변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수 1인당 학생수나 1인당 교육비 등 교육 관련 투입 정보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는 것이 이 모델의 한계인데, 관련 논의는 추후의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우리의 취업률이 고용률에 가까운데다 아마도 여성의 경우 유보임금이 높아 경제활동 참가 자체가 낮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또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률이 유의하게 낮아지지만, 일정 연령이 지나면 연령 증대에 따라 취업률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본문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 별도의 로짓분석을 해보면 연령효과가 남자 졸업생과 여자 졸업생의 경우에 상이하게 나타난다. 여자의 경우에 연령이 그다지 유의하지 않은 반면, 남자의 경우에는 연령 증가에 따라 취업률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남성의 경우 군입대로 인해 취업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수도권대학 여부는 현재의 취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이 지방대학 출신 졸업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점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취업 가능성은 지방대학 졸업생에 비해 1.4배 가까이 높다. 그러나 수도권대학이 취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도권대학 입학 학생들의 기본 자질이 우수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입학 학생들의 능력을 수능점수가 상당 정도 대표한다고 볼 때, 수능점수를 회귀식의 설명변수로 포함시킬 경우 수도권대학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의 추정계수 크기가 축소되거나 더 이상 유의하지 않기를 기대할 수 있다. 예상대로 회귀식 1과 회귀식 2, 3, 4의 추정 결과를 비교하면, 수능점수가 설명변수로 포함될 경우 수도권대학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의 추정계수의 크기가 축소된다. 수도권대학의 취업률이 높은 것은 통념대로 우수한 인재가 수도권대학으로 몰리는 것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수능점수를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대학 더미변수의 추정계수가 여전히 양의 유의한 값을 보인다는 점이다.¹⁹⁾ 이는 대학교육의 성과가 단순히 입학한 학생의 자질과 능력에 의해서만 좌우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수도권대학이 지방대

18) 회귀계수가 로짓 척도이기 때문에 이를 승산비로 전환하여 해석하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경우에도 남성이 여성보다 $\exp(0.897)=2.45$ 배 더 취업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19) 임금회귀식의 추정 결과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확인되는데(채창균 외, 2004), 이는 입시 성적을 통제할 경우 수도권대학의 임금프리미엄이 사라진다는 선행 연구(장수명, 2002)와 다소 상치된다. 이러한 결과는 사용된 자료와 분석 모형 등의 차이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장수명(2002)의 분석이 소표본을 토대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장수명(2002)에서도 5개 명문대학의 경우에는 입학성적을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프리미엄이 확인된다. 두 연구의 차이는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으로 보인데, 이에 대한 보다 엄밀한 판단은 추후의 과제로 미룬다.

〈표 5〉 취업률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4년제 대학 졸업생: 교육, 의약계열 제외)

	식 (1)		식 (2)		식 (3)		식 (4)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상수항	4.465	(0.851) ***	4.154	(1.056) ***	4.392	(1.048) ***	3.235	(1.067) ***
성더미(남자=1)	0.897	(0.042) ***	0.917	(0.052) ***	0.907	(0.052) ***	0.910	(0.052) ***
연령	-0.279	(0.062) ***	-0.271	(0.076) ***	-0.274	(0.076) ***	-0.277	(0.076) ***
연령제곱	0.004	(0.001) ***	0.004	(0.001) ***	0.004	(0.001) ***	0.004	(0.001) ***
수도권대학 여부	0.317	(0.028) ***	0.199	(0.048) ***	0.243	(0.043) ***	0.172	(0.048) ***
국립대학 여부	-0.157	(0.079) **						
수능 4분위더미 (20% 이하 기준)								
25~50%			0.181	(0.110) *				
50~80%			0.259	(0.113) **				
80% 이상			0.526	(0.126) ***				
수능 4분위더미 (30% 이하 기준)								
30~70%					-0.023	(0.055)		
70% 이상					0.223	(0.063) ***		
수능점수(연속)							0.011	(0.002) ***
전공계열더미 (인문계열 기준)								
사회계열	0.189	(0.044) ***	0.243	(0.051) ***	0.218	(0.051) ***	0.223	(0.051) ***
공학계열	0.447	(0.045) ***	0.473	(0.055) ***	0.475	(0.055) ***	0.475	(0.055) ***
자연계열	0.114	(0.047) **	0.166	(0.056) ***	0.186	(0.056) ***	0.182	(0.056) ***
예체능계열	-0.293	(0.066) ***	-0.096	(0.126)	-0.264	(0.099) ***	0.016	(0.107)
Likelihood Ratio	1356.789***		978.177***		990.123***		996.639***	
N	30,014		20,314					

주: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유의함.

()안이 표준오차임.

학에 비해 교육 역량이 높은 점을 반영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는 기업의 지방대학 졸업생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존재하거나 기업의 의사결정이 수도권대학 출신자들에 의해 독점되어 지방대학 졸업생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취업이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에 비해 보다 유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수능성적이 우수한 대학 졸업생의 경우 고시 준비나 상급학교 진학 등으로 현재 비경제활동 상

태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의 취업률 지표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모두 미취업자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능성적이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이 과소하게 포착될 수 있고, 따라서 수능성적을 통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수도권대학의 취업률 효과가 과대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셋째, 수능점수의 경우 예상대로 현재의 취업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한편 수능성적을 4분위와 3분위로 나눌 때 중위 수능성적 범주의 효과가 달라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능성적이 낮은 범주에 속할수록 수능성적이 취업에 그다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추론된다.

넷째, 여러 요인들이 통제될 경우에도 전공의 중요성이 확인된다. 성과 연령이 같고 수능성적이 유사하며 같은 수도권대학이나 지방대학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전공이 다르면 취업률이 유의하게 상이하다. 추정 결과에 의하면, 인문계열 전공자에 비해 사회계열과 공학계열 및 자연계열 전공자의 취업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학계열 졸업생의 취업 가능성이 인문계열 졸업생에 비해 1.6배 정도 높고, 사회계열 졸업생은 1.2~1.3배, 자연계열 졸업생은 1.1~1.2배 정도 높았다. 이는 전공에 따른 교육효과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입학성적을 통제하였을 때 직업 렌트가 존재하는 일부 전공을 제외하고 대학 전공의 임금프리미엄 효과가 사라진다는 다른 실증분석 결과(이병희 외, 2004)와 상이한 것인데, 노동시장 수급상황에 대한 대학의 대처가 신속하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는 본 연구의 추정 결과가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²⁰⁾ 다시 말해, 대학이 전공별 정원 조정 등의 형태로 노동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처한다면 전공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대학 현실에서는 이렇게 유연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전공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²¹⁾

2. 전문대학 졸업생

먼저 전문대학 졸업생의 학교 특성별 취업실태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4년제 대학에 비해 취업률이 낮다. 이는 우리의 취업률이 고용보험 가입 사

20) 본 연구와 동일한 자료를 활용하여 임금함수를 추정한 채창균 외(2004)에 따르면, 수능성적이 통제된다 하더라도 전공에 따른 임금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1) 전공계열을 보다 세분화해서 분석해 보면 사회계열의 경우 전공 중분류별로 볼 때 경영·경제 분야의 취업률이 74.2%로 법률(66.3%), 기타 사회과학(66.0%) 분야보다 높게 나타나며, 다른 전공 대분류에서도 중분류별로 취업률의 차이가 확인된다.

〈표 6〉 전문대학의 수도권 소재 여부와 졸업생 취업률

(단위: %)

	남 자	여 자	전 체
수도권대학	71.7	64.5	68.3
지방대학	69.9	66.9	68.3
전 체	70.8	66.0	68.3

업장 취업자만을 포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 취업의 질을 부분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4년제 대학과 상이하게 수도권 전문대학과 지방 전문대학 간의 취업률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4년제 대학과 달리 전문대학의 경우 수도권 소재 여부가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문대학 졸업생이 주로 그 대학 소재 지역내 기업에 취업하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²²⁾

〈표 7〉에 따르면,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수능성적이 취업률에 일정 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4년제 대학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다. 이는 전문대학의 경우 수능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기업이 전문대학 졸업생을 선발하는 데 수능점수를 주된 시그널로 삼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표 7〉 전문대학 졸업생의 수능성적과 취업률

(단위: %)

		남 자	여 자	전 체
수능성적 4분위별	20% 이하	68.2	65.9	67.0
	20~50%	69.9	64.4	67.2
	50~80%	71.8	66.7	69.1
	80% 이상	73.6	68.2	70.9
수능성적 3분위별	30% 이하	69.1	65.6	67.3
	30~70%	71.0	66.1	68.5
	70% 이상	73.2	67.7	70.4

22) 우리의 자료에 의할 경우 출신 학교 소재지와 취업 직장 소재지가 도 단위로 일치하는 비율은 전문대학의 경우에 훨씬 높다. 예를 들어, 강원도의 경우 전체 취업자에서 동일 도내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4년제 대학의 경우 16.4%에 불과한 반면, 전문대학의 경우 그 비율이 46.7%에 달한다. 그 밖에 충남의 경우 29.7% 대 46.7%, 전남은 43.2% 대 59.5%, 경남은 51.9% 대 73.6%, 경북은 50.4% 대 53.1% 등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채창균(2004)을 참조할 것.

4년제 대학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어떤 요인들이 현재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현재 취업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짓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고려되는 설명변수와 회귀식 모형은 앞에서 언급했던 4년제 대학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²³⁾ 다만, 직장생활 경험자의 상당수가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입학 전 취업 경험 유무를 새로운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는 점이 다소 다를 뿐이다. 추정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추정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 측면으로 정리된다.

첫째, 남자 졸업생의 취업률이 유의하게 높지만, 4년제 대학만큼 남녀간의 취업 가능성의 격차가 크지는 않다. 남자의 취업 가능성이 여자에 비해 1.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제 대학 졸업 여성과 전문대학 졸업 여성의 유보임금의 격차가 클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령 증대에 따라 현재 취업해 있을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아지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연령증대가 취업 가능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앞의 4년제 대학 분석 결과와 동일하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로짓분석을 했을 때의 결과는 앞의 4년제 대학에서처럼 여자의 경우 연령이 취업률에 유의하게 작용하지 않는 반면, 남자의 경우 군입대로 인해 취업이 늦어지는 측면을 반영하여 연령 증가에 따라 취업률이 유의하게 높아진다.

둘째, 수능성적이 고려될 경우 4년제 대학과 달리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이 지방전문대학의 졸업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지 않았다.

셋째, 수능점수의 취업률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수능성적이 낮은 집단 내에서는 수능성적이 취업에 유용한 시그널로 작용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즉, 수능성적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야 비로소 수능성적이 취업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넷째, 다른 조건이 통제되더라도 전공간의 취업률 격차가 존재한다. 수능점수까지 통제되었을 경우 인문계열보다 취업률이 유의하게 높은 전공 분야는 의약계열, 공학계열과 사회계열이다. 의약계열 졸업생의 취업 가능성은 인문계열 졸업생에 비해 1.9배 가까이 높고, 공학계열은 1.4배, 사회계열은 1.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 이 부문에 대한 인력수요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할 것이다.

다섯째, 입학 전 취업 경험이 현재의 취업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입학

23) 그러나 4년제 대학의 경우와 달리 교육계열과 의약계열 졸업생을 제외하지 않았다. 이는 4년제 대학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표 8〉 취업률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전문대학 졸업생

	식 (1)		식 (2)		식 (3)		식 (4)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상수항	3.678	(0.444)***	4.005	(0.521)***	3.949	(0.520)***	3.909	(0.521)***
성터미(남자=1)	0.305	(0.035)***	0.316	(0.042)***	0.312	(0.042)***	0.310	(0.042)***
연령	-0.226	(0.033)***	-0.250	(0.038)***	-0.247	(0.038)***	-0.247	(0.038)***
연령제곱	0.004	(0.001)***	0.004	(0.001)***	0.004	(0.001)***	0.004	(0.001)***
수도권대학 여부	0.064	(0.026)**	-0.006	(0.035)	0.012	(0.034)	0.018	(0.035)
국립대학 여부	0.070	(0.042)*	0.057	(0.048)	0.068	(0.047)	0.071	(0.048)
입학이전 취업경험 여부	0.075	(0.035)**	0.087	(0.041)**	0.087	(0.041)**	0.087	(0.041)**
수능 4분위더미 (20% 이하 기준)								
25~50%			-0.048	(0.051)				
50~80%			0.032	(0.049)				
80% 이상			0.072	(0.055)				
수능 4분위더미 (30% 이하 기준)								
30~70%					0.027	(0.041)		
70% 이상					0.055	(0.045)		
수능점수(연속)							0.0004	(0.0003)
전공계열더미 (인문계열 기준)								
사회계열	0.212	(0.062)***	0.233	(0.071)***	0.236	(0.071)***	0.234	(0.071)***
교육계열	-0.100	(0.085)	-0.139	(0.092)	-0.122	(0.091)	-0.119	(0.091)
공학계열	0.346	(0.062)***	0.353	(0.072)***	0.360	(0.072)***	0.361	(0.072)***
자연계열	0.081	(0.067)	0.067	(0.079)	0.069	(0.079)	0.069	(0.079)
의약계열	0.639	(0.071)***	0.600	(0.079)***	0.617	(0.079)***	0.617	(0.080)***
예체능계열	-0.238	(0.068)***	-0.216	(0.082)***	-0.226	(0.082)***	-0.230	(0.081)***
Likelihood Ratio	477.223***		390.109***		385.130***		384.355***	
N	31,589		24,555					

주: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유의함.

()안이 표준오차임.

전 취업 경험자의 취업 가능성은 취업을 경험하지 못한 졸업생에 비해 1.1배 정도 높았다.24) 직장생활 경험 이후의 진학은 고교 졸업 후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 비해 보다 목적의식적인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과거의 취업 경험이 진학 후 학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며 졸업 이후의 취업을 대비한 학습을 보다 효과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측면, 다시 말해 노동시장에서 학교로의 이행(work-to-school)이 원활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school-to-work)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전문대학과 유사 교육훈련기관의 비교

전문대학과 이와 유사한 교육훈련기관인 기능대학, 그리고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2년 과정의 취업률을 비교해 보면, <표 9>와 같다. 그간 기능대학이나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경우 보다 현장적합적인 교육훈련으로 인해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비율은 전문대학과 기능대학 간에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여자의 경우에는 다소나마 전문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이 높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의 취업자가 고려되지 않은 만큼 취업률 수준이 두 기관 간에 비슷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국한한, 따라서 적어도 어느 정도 취업의 질이 고려된 취업률 비교에서는 두 기관 간에 큰 차이가 없다 할 것이다. 또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에 비해서는 전문대학과 기능대학 졸업생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취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이는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인력개발원의 특성상 입학생의 능력이나 자질이 전문대학이나 기능대학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에 기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9> 전문대학, 기능대학,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취업률 비교

(단위: %)

		남 자	여 자	전 체
전문대학	수도권	71.7	64.5	68.3
	비수도권	69.9	66.9	68.3
	전 체	70.8	66.0	68.3
기능대학	수도권	73.6	64.6	70.6
	비수도권	67.1	64.1	66.7
	전 체	70.4	64.4	68.9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수도권	65.0	63.4	64.8
	비수도권	64.2	63.4	64.1
	전 체	64.4	63.4	64.3

24) 입학 전에 취업했던 직장을 현재에도 계속 다니고 있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수도권 소재 여부에 따른 취업률의 차이를 보면,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기능대학이나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경우 수도권 소재 기관 졸업생의 취업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능대학의 경우 그 차이가 현저했다.

로짓분석을 통해 전문대학과 기능대학, 그리고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졸업생 간의 취업률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종속변수는 현재의 취업 여부를 나타내며, 설명변수로는 성과 연령 등 개인의 인적 속성 이외에 중분류 수준의 전공 계열 더미변수와 입학 이전 취업 경험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전문대학을 기준으로 기능대학과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각각에 대한 더미변수를 동시에 고려하였다. 또 전공 계열을 설명변수로 고려하기 위해 전문대학의 경우 전체 졸업생을 대상으로 삼지 않고, 분석 대상을 기능대학이나 대한상의 인력개발원과 공통되는 중분류 전공 분야에 국한하였다. 추정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앞서의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남자 졸업생의 취업률이 여자 졸업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 다만, 남자의 취업 가능성이 여자보다 1.24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4년제 대학의 경우에 비해 남녀간의 격차가 크지 않다. 이 역시 여자 졸업생의 유보임금 수준이 4년제 대학 여자 졸업생에 비해 낮기 때문일 수 있다.

둘째, 입학 이전 취업 경험은 현재의 취업에 양(+의 유의한 효과를 미친다. 입학 전 취업 경험자는 미경험자에 비해 취업 가능성이 1.14배 정도 높다.

셋째, 전공별로는 로짓분석의 대상이 되는 세 가지 중분류 간에 취업률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수도권 소재 여부가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소재 기관 졸업생의 취업률이 비수도권 소재 기관 졸업생에 비해 1.08배 정도 높다.

다섯째, 다른 조건이 통제되었을 경우 전문대학의 취업률이 기능대학이나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과 기능대학의 평균적 취업률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짓분석에서 기능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이 전문대학 졸업생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은, 특히 기능대학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은 남성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 기능대학과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을 비교하면, 기능대학 쪽이 취업 성과가 더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능대학 졸업생의 취업 가능성은 전문대학 졸업생의 84% 수준에 불과하다.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경우에는 더욱 낮아 66%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본문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입학 이전 학

<표 10> 취업률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전문대학, 기능대학,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비교)

	식 (1)	
	계 수	표준오차
상수항	0.158	(0.689)
성더미(남자=1)	0.214	(0.078) ***
연령	0.026	(0.051)
연령제곱	-0.00002	(0.001)
수도권 소재 여부	0.080	(0.048) *
기관더미(전문대 기준)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0.416	(0.072) ***
기능대학	-0.170	(0.061) ***
입학이전 취업경험 여부	0.127	(0.064) **
전공계열더미(기계/금속 기준)		
토목/도시공학	0.041	(0.075)
전산/전기/전자	0.055	(0.051)
Likelihood Ratio	95.152***	
N	9,459	

주: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유의함.

()안이 표준오차임.

력이나 취업 경험 여부 등을 통해 두 기관별 입학생의 인적 속성 차이를 어느 정도 통제하고 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에 비해 기능대학 졸업생의 취업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⁵⁾

4. 직업전문학교와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1년과정 수료생

1년 기간의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직업전문학교와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2001년 수료생의 2004년 6월 말 현재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취업 현황을 보면 <표 11>과 같다. 남자와 여자를 불문하고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수료생의 취업률이 직업전문학교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남자의 경우 취업률의 격차가 현저하다. 그러나 이러한 격차는 직업전문학교 수료생의 학력이나 연령 수준으로 미루어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수료생에 비해 대학 진학이나 군입대 비율이 높은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25) 물론 입학생의 질이 완전히 통제되고 있지 못한 한계를 감안하고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11〉 직업훈련기관 1년과정 수료생의 취업률 비교

(단위: %)

		남 자	여 자	전 체
직업전문학교	수도권	42.5	40.3	42.1
	비수도권	49.5	48.7	49.4
	전체	48.5	47.4	48.4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수도권	54.8	33.3	50.5
	비수도권	58.1	55.7	57.5
	전체	57.4	51.5	56.0

후술하는 로짓분석을 통해 보다 엄밀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평균적으로 볼 때 비수도권 소재 기관 수료생의 취업률이 수도권 소재 기관 수료생에 비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전문학교와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1년과정 수료생을 대상으로 현재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의 취업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대상은 두 기관에 공통되는 중분류 전공 분야에 국한하였다.

〈표 12〉 취업률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직업전문학교와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비교)

	식 (1)	
	계 수	표준오차
상수항	-4.454	(0.754) ***
성더미(남자=1)	-0.087	(0.102)
연령	0.335	(0.061) ***
연령제곱	-0.006	(0.001) ***
수도권 소재 여부	-0.294	(0.102) ***
입학이전 취업경험 여부	-0.151	(0.132)
기관 더미(직업전문학교 기준)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0.132	(0.113)
전공계열 더미(기계/금속 기준)		
토목/도시공학	0.181	(0.302)
전산/전기/전자	0.228	(0.096) **
컴퓨터/통신	0.026	(0.090)
디자인	-0.005	(0.240)
Likelihood Ratio	76.108***	
N	3,698	

주: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유의함.

()안이 표준오차임.

먼저 1년과정 훈련 수료생의 경우 남녀간의 유의한 취업률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률이 높아지는 양상이 확인된다.

입학 이전 취업 경험은 현재의 취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전공별로는 기계·금속에 비해 전산·전기·전자의 취업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소재 여부는 오히려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연령이나 학력 수준 등 다른 조건들이 통제된 상태에서는 대한상의 인력개발원과 직업전문학교 수료생 간의 취업률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평균적인 취업률 격차는 바로 이러한 인적 속성 등에서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IV. 요약 및 결론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 성과가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4년제 대학(71.9%)이 2년제 교육훈련기관(전문대학 68.3%, 기능대학 68.9%,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2년과정 64.3%)에 비해, 또 2년제 교육훈련기관은 1년과정의 직업훈련기관(대한상의 인력개발원 1년과정 56.0%, 직업전문학교 48.4%)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았다. 다만, 특히 2년제 이상 과정의 경우 취업률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취업의 질을 고려하면 교육훈련기관간의 격차가 더 현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²⁶⁾

둘째,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취업 성과가 지방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수 학생이 수도권대학에 집중되는 투입 측면에서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 취업 성과의 격차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격차는 투입 측면의 차이 이외에 수도권대학의 교육 역량이 보다 우수하거나, 정보부족으로 인해 지방대학에 비해 수도권대학을 우대하는 노동시장에서의 통계적 차별(statistical discrimination) 관행이 존재하기 때문일 수 있다. 요인을 보다

26) 본 연구와 동일한 자료를 사용한 채창균 외(2004)에 따르면, 직업전문학교 졸업생의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4년제 수도권대학 출신 졸업생의 임금수준이 193으로 가장 높으며, 지방소재 4년제 대학이 153, 수도권 전문대학이 134, 기능대학이 130, 지방소재 전문대학이 118인 것으로 나타난다.

특정해서 그 격차를 설명해 내는 것은 추후의 연구 과제이다. 그러나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취업률의 차이가 크지 않다.

셋째, 수능성적은 취업 성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수능성적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취업이 용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수능성적의 취업 효과는 주로 4년제 대학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수능성적이 개인의 능력을 시그널링하는 기능을 하지만, 이러한 기능은 주로 수능성적 상위 집단에 국한되어서 발휘된다 할 것이다.

넷째, 여러 요인이 통제될 경우에도 전공은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과 연령이 같고 같은 수도권 대학이나 지방대학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전공이 다르면 취업률이 유의하게 상이했다. 특히 다른 계열에 비해 인문계열의 취업률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전문대학과 기능대학 및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2년과정 졸업생의 취업 성과를 비교하면, 전문대학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과 기능대학 간에는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기존의 통념과 달리 대체로 전문대학 졸업생의 취업 성과가 기능대학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또 학위가 수여되지 않는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에 비해서는 전문대학과 기능대학 졸업생의 취업성과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음도 특기할 만하다. 2년제 교육훈련기관간의 이러한 취업률 격차는 부분적으로는 졸업생들의 인적 속성의 차이가 충분히 통제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선택편의에 대한 수정은 추후의 연구과제라 할 것이다.

여섯째, 1년과정의 직업훈련기관인 직업전문학교와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1년과정 수료생의 취업 성과를 비교하면, 단순 평균 비교시 민간기관적 성격이 강한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취업 성과가 다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로짓분석에서는 두 기관간의 취업률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인 취업 성과의 격차 중 상당 정도는 두 기관 입학생의 인적 속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이병희 외.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이행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2.
- 이병희.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3.
- 이병희 외. 『교육과 노동시장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4.
- 전병유 외. 『고졸 미진학 청년층의 고용·실업현황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3.
- 장수명. 「대학교육의 경제학」. 『노동정책연구』 2권 1호(2002. 3): 47~79.
- 장홍근 외. 『직업전문학교 수료생의 취업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
- 채창균. 「청년실업의 실태 및 원인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4권 2호(2001. 12): 1~25.
- 채창균 외. 『청년층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학교와 노동시장의 연계강화 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2.
- 채창균 외. 『청년실업 종합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
- 채창균 외. 『청년층 교육·훈련과 고용(I) - 교육훈련기관 유형별 분석』.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4.
- 채창균. 「지역인적자원의 유출 실태 분석」. 미발표논문, 2004.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01.
- 한국교육개발원. 『2003 학과(전공)분류 자료집』. 2003.
-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 졸업자 취업동향 분석』. 2004.
- Blanchflower, David G., and Freeman, Richard B. "The Declining Economics Status of Young Workers in OECD Countries." edited by in Blanchflower David G. and Freeman, Richard B. *Youth Employment and Joblessness in Advanced Countrie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 Levin, H. M. "Youth Unemployment and its Educational Consequences."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5 (2) (Summer 1983): 231~247.

Makenham P. "Youth Unemployment." Department of Economic Research Paper No.10, 1980.

abstract

Employment Rate of the Youth in Korea: An Analysis by Types of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s

Chang-Kyun Cha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transition of the youth to the labor market by types of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s focusing employment rate. To construct the dataset for the analysis, the list of the graduates from 4-year universities, junior colleges, polytechnic colleges and the graduates from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s as of February 2001 has been merged with the database for the insured in the Unemployment Insurance Database. This data enables tracking down of these graduates in terms of their mobility in the labor market. For graduates from universities and junior colleges, their scores on the Scholastic Aptitude Test have been matched. One of major findings is that the longer the schooling period is, the better the employment results are. Among those who finished 4-year universities, those who went to schools in the metropolitan area achieve a relatively better record in job finding than those who attended schools in the local areas. Meanwhile it is confirmed that the SAT score is highly co-related with the performance in the labor market among those who finished 4-year universities. The co-relation of one's major with his/her employment is not negligible also.

Key Words: Employment rate, The Unemployment Insurance Database, Univers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in the Local Areas, SAT Acore, Effect form the Major